

# 두제역 백신 정기접종 현장을 찾아서



두제역 백신 접종은 유·무균 우유 생산을 위한 재접종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데 시기가 하필 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겨울이다. 접종시기를 두고 농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올바른 항체 유지를 위한 접종방법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백신 접종의 실정을 찾아갔다. 다음은 김경산 원장과의 백신 접종관련 취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백신 접종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 겨울에 맞힌 농가들이 혹서기인 요즘 재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백신 접종국가의 대부분은 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봄·가을에 한다. 사독백신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백신상시접종국가로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시기에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축종의 접종을 다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젓소가 가지는 스트레스까지 세세히 고려하진 못한 듯하다. 이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젓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유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만 조금 기다렸다가 날씨가 선선한 가을에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 주기가 가을-봄으로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규 매뉴얼대로 백신을 보급한 상태이니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6월 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측에서 알린 접종 요령에 금번 보급되는 백신은 A·O·Asia1 혈청형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O타입이 보급되는 문제에 대해서, “마침 충청도에서 제조일자가 2월로 찍힌 백신이 O타입이라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면서 작년 12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100만두 분씩 들어온 것으로,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백신의 확인이 정확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라벨 미부착 백신의 유통가능성에 대해서는 유통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실제로 인근 농장을 방문하여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실제로 O타입이 지급되고 있었다.



공무원 입회 하에 농가들이 스스로 접종하는 규정에 관하여 과연 현장에는 어떠한지 접종 실태를 물었다. 김원장은 “백신은 농가에게 바로 지급이 되며 다만 이 지역은 고양시에 속하는 서울우유 조합원들것만 수령하긴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낙우회장이 인수한다. 사실 농가들이 직접 맞히는 경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래는 공무원 입회 하에 공급받은 백신으로 자가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해볼 때 고령자가 적지 않아서 실제로 자가접종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직접 수의사가 놓는 것이 바람직해 웬만하면 수의사가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수의사들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농가들이 ‘이 소가 왜 이러지?’ 라며 소의 행동에 이상징후가 보이면 접종을 한 사람이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곳에만 안 아프게 놓아야하는데 농가들이 접종을 하다가는 바늘이 꺾여서 빠지지 않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등 미숙한 점이 많다. 그리고 수의사들은 목장을 둘러보면 아픈 소가 딱 보이지만 일부 농가들은 아픈 소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가접종시 한꺼번에 일제 접종을 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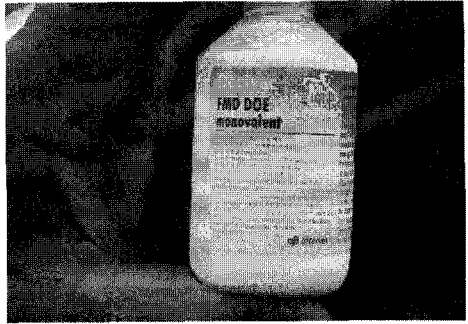


그리고 백신 접종 이전에 면역증강제의 투여 효과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면역증강제는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투여했다고 해서 똑같이 면역을 생기는 것은 아니고 면역을 생겼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똑같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도 기생충약을 미리 투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면역 증강제는 말 그대로 쯤소 개체별 체력에 그 효능이 달려있다. 백신이 상

식적으로 100% 면역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 조그마한 불확실성이 수익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조금 애매한 것이 있다. 정부에서 백신의 효과가 83% 정도만 나타나고 나머지 17% 정도는 불확실함 속에 있는 것을 어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예를 들어, 한 목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도 과반이 넘는 83%가 면역을 생긴 상태라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신의 목적은 바이러스를 국소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기 때문에 퍼지지만 않으면 그 효과는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소들의 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질병, 분만, 임신, 이유, 제각, 거세 등)에 놓인 소들에게 접종을 하고 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유량감소나 증체량 감소가 나타나면 이것이 마치 백신의 부작용인양 비춰지는 것이다. 다만 첨가제의 종류가 다 달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재차 접종 시기가 지나면 정부도 낙농에서의 백신접종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협회 측에서도 수의사들이 접종한 곳과 일반 농가들이 자가 접종한 곳 간의 부작용 발생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장의 경우 전적으로 목장일을 외국인에게 일임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한 경각심 없이 접종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목장에서는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어 접종이 다소 불안한 면도 없지 않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이슬람 쪽 노동자들은 축주의 이름으로 택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 문화는 양고기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양고기·양털모자·축산물가공품 등이 농장의

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별 검역도 거치지 않고 축주도 모르게 목장으로 배송되는 일도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착유시 젖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백신의 보급실태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백신의 보관은 진료소에서 하려고 한다. 목장에 바로 공급해버리면 실제로 백신을 투여했는지 병을 수거한다든가 하는 접종 확인 시스템이 미비된 현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백신이 관리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곳은 목장에 직접 맡기는 실정이다. 참고로 대만은 대만수의 사회를 통해 직접 수의사들이 접종하도록 한다.”고 한다.

김영찬 원장은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은 앞서 언급한 특별한 상황에 놓인 소들까지 나중에 1마리도 빠지지 않고 접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예방주사는 어디까지나 예방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 면역이 100% 형성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신뢰는 하지 말고 끊임 없는 예찰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집유차나 사료차가 농장에 드나들지만 축주 본인의 자가용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사실을 지목하면서 목장주 본인부터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㉞

취재\_이정훈



**김영찬 원장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백신접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병든 소에게는 백신접종을 완치후까지 미룬다.
2. 분만 후 최소 10일에서 한달 가량 후에 접종하라.
3. 가급적 혹서기, 혹한기에는 접종을 피한다.(단, 금번 정기접종 조치에는 이 같은 원칙을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접종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음)
4. 새로 구입한 소는 도착 후 2~3일 후에 접종하라.(환경이 바뀌는 경우 그 개체에게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5. 일명 'stress event' 즉, 분만 · 이유 · 제각 · 거세시에는 최소 3일에서 10일 이후에 접종하라.
6. 주사 전 구충을 실시하라.